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허미경** · 도미향***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의사소통, 신뢰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4차의 양육방식(성취압력), 부모애착척도(IPPA), 자아존중감과 15차의 학업스트레스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IBM SPSS 26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과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 매개효과분석과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부모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둘째,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뢰는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취압력 중심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모와의 신뢰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방식,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청소년

논문 투고일: 2024. 10. 05. 최종심사일: 2024. 12. 02. 게재확정일: 2025. 03. 26.

* 이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제15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함.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o, Mi-Hyang, Professor, Dept.,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domi@nsu.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4차 산업 혁명과 학교 문화의 변화를 동반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문현숙, 2022).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불안정한 가족구조와 치열해진 입시 중심의 학교 문화는, 청소년들이 발달 주기에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응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결과로, 13세~18세의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46.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2018년 실행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국가별 학업스트레스 설문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50.5%로 세계 최상위국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 방정환재단에서 2024년 실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 지수’ 표준 점수는 79.5점으로 OECD 22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시험, 성적 등으로 인한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다(허미경·김선길·도미향, 2024).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소진(burnout)과 우울감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비행,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Yan·Lin·Su & Liu, 2018). 또한,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는 무관심, 잦은 결석, 학업 중단 등의 학교 부적응과 자살 충동 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조사되고 있다(강정애, 2016; 곽유림, 2016).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안태용, 2016; 김대웅·박하연·이강이, 2022; Murberg & Bru, 2004; Banks & Smyth, 2015)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교사와의 대인관계가 학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수진, 2021). 우리나라는 중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되어, 부모의 기대와 요구(이미라·전향신, 2020; 전향신·박분희, 2020), 증가하는 학업량과 학교생활의 비교(염유식·김경미·이승원, 2016), 석차로 표기되는 성취 방식 등이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양분·강호수, 2017). 특히,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중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신창환·이효녕·김초복·허재홍, 2018).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청소년들이 가정 중심으로 생활이 전환되고,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보다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백수진, 2021). 또한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가족을 중심으로 관계성이 제한되었고(홍윤경·최혜진, 2024), 부모의 관리 감독을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코칭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변수로 연구되었다(김경호·차은진, 2014; 박현선·김정은·박지명, 2014; 이선행·황혜정, 2018; 이지연·김해란, 2019).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김경호·차은진, 2014), 긍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진로의 방향을 잡아주고(이주연·조연희, 2015; 김진아, 2019; 정성원·장유나·홍세희, 2021), 자녀의 성격 특성과 학교적응, 친구 관계(박혜진·김형태·이수천, 2018),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이선애, 2009; 정성원 외, 2021).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양육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편, 학력 취득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은 미래의 안정된 직업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많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김용기, 2022; 하아영, 2022). 반면, 부모로부터 본인 능력 이상의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는 청소년은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불안을 느껴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남상필·이지연·장진이, 2012; 오정희·선혜연, 2013; 조선화, 202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청소년의 학업 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 그릿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조선화(2022)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거쳐 학업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여자 청소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한 연구(김미옥·이용택, 2023)에서는 여자 청소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모의 성취압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발달과업 측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학업성취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성취압력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가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부모의 지지와 관심은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송미라·한기백, 2015; 도미향·김은영, 2024). 청소년기는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며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나, 지적 능력이 자신을 향할 때 쉽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의식이 과장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신명희 외, 2017). 이때 사람들 간의 감정과 사실, 태도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김은자, 2018).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사소통할 적절한 대상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Kusheta et al., 2019).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언어와 몸짓을 활용하여 서로의 감정 및 사고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강윤경, 2012).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이 부모임을 가정하면, 청소년의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부모 양육 태도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이유림, 2021).

실제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이지현·김해란, 201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했고,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김경호와 차은진(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의사소통에 주목하였다.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을 들 수 있다. 이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는 자녀가 겪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성심·강승희, 2023).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는 부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뢰감이다(문현숙, 2022). '부모에 대한 신뢰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성장신념과 학습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성심과 강승희(2023)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신뢰 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신뢰적인 양육 태도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나 수업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환 외, 2018; 임성애, 2021).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의 신뢰감을 의사소통과 함께 또 다른 긍정적 양육방식의 지표로 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성취압력, 긍정적 양육방식인 의사소통과 신뢰가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변환과정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 성취를 평가할 때 가장 밀접한 정서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실패를 잘 견디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이다(문명현, 2016; Baumeister & Leary, 1995).

Rosenberg(1989)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관한 평가와 연관하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과 가치를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한다(지민정·이에스더, 2023).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 자신감을 말하며,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정수정·김소은·정익중, 2018). 즉,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 변인은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에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김은진, 201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사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송홍정, 2020; Koruklu, 2015),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김지영·이형실, 2010). 선행 연구 역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가교역할을 검증해왔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존중감, 시험 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한 양선하(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시험 불안을 높이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차한솔, 김주일 그리고 이호수(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신성철·최성열, 2019)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김유정·이은미, 2016).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스트레스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채영·정현희, 2013; 김현순, 2014; 김은정·김윤정, 2024), 스트레스 대처(아영아·정원철, 2010; 배용순, 2022)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학업스트레스 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향요인, 메커니즘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 양육방식 중 한 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김은진, 2015; 성은정·이호준, 2021; 한유진, 2024),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박예라, 2020; 손승희·정지나, 2021; 박동진·김송미, 2023), 양육방식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백은경·이용택·이은경, 2017; 김성심·강승희, 2023)에 대한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통합적 연구는 극히 미지한 단계이다.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학업 성취라는 점에서 학업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연구적 가치가 높은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성취압력과 긍정적 양육방식인 의사소통, 신뢰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코칭,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방식(성취압력, 의사소통, 신뢰)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방식(성취압력, 의사소통, 신뢰)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실제 본조사에 응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패널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4

차인 중학교 1학년의 양육방식(성취압력), 부모애착척도(IPPA), 자아존중감과 15차인 중학교 2학년의 학업스트레스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 14차, 15차를 사용한 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환경, 문화, 인식,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인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14, 15차의 변인을 활용한 것이다.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은 본 조사에 응한 총 대상자 2150명 중, 14차·15차 자료에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3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635명(51.4%), 여학생 601명(48.6%), 모 연령대는 20~30대 106명(8.6%), 40대 1040명(84.1%), 50대 이상 90명(7.3%)으로 확인되었다. 부 연령대는 20~30대 32명(2.6%), 40대 959명(77.6%), 50대 이상 245명(19.8%)으로 확인되었고, 모 학력 고졸 이하 328명(26.5%), 대학 이상 908명(73.5%), 부 학력은 고졸 이하 333명(26.9%), 대학 이상 903명(73.1%)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청소년 성별	남학생	635	51.4
	여학생	601	48.6
모 연령대	20~30대	106	8.6
	40대	1040	84.1
	50대 이상	90	7.3
부 연령대	20~30대	32	2.6
	40대	959	77.6
	50대 이상	245	19.8
모 학력	고졸 이하	328	26.5
	대학 이상	908	73.5
부 학력	고졸 이하	333	26.9
	대학 이상	903	73.1
전체		1236	100.0

2. 연구 도구

1) 성취압력

본 연구는 강영철(2003)의 연구에서,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중 성취압력 관련 일부 문항과 김경옥(1992)의 학업성취압력 중 양육 행동적 측면 문항을 수정·보완해서 15문항 척도로 완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십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 중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애착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서의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은 이정림 외(2017)의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에서 Armsden & Greenberg(1987)의 원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번안본을 12차 년도(초등4학년)에 맞도록 문장을 수정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부와 모에 대해 따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3개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으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인 1번~6번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질문은, 1.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2.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3.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십니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등 6문항이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항상 그렇다 (5점)의 점수화 방식이다.

3) 부모와의 신뢰

부모와의 신뢰는 부모애착(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서의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다. 신뢰감은 부모애착 척도 중 10번~12번 문항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이다.

신뢰에 해당하는 질문은 1. 아버지(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2.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화가 난다(R). 3.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항상 그렇다 (5점)’의 점수화 방식이다.

4)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여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9차년도 조사부터 일부 문항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1.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 나에게서 좋은 면이 많다. 3.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4.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의 총 5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5) 학업스트레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사용한 것이다. 초 4~초 6까지는 3문항이었는데, 14차(중1)부터는 1문항 추가되어 총 4문항으로 조사되었다. 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대학 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그런 적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중학교 1학년인 14차, 종속변수는 중학교 2학년인 15차 자료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14차의 독립변수가 15차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1년 전의 특정 사건이 1년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종단적 관계를 보여줌으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IBM SPSS 26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응답자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은 모두 유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척도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Cronbach's alpha값이 0.6을 기준으로 하며(Hair et al.,1998), 성취압력 .941, 의사소통 .913, 신뢰 .782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alpha값이 0.6 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양육방식	성취압력 14차	15	0.941
	의사소통 14차	12	0.913
	신뢰 14차	6	0.782
자아존중감 14차		5	0.862
학업스트레스 15차		4	0.825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성취압력 14차의 평균은 2.33(SD=.82), 의사소통 14차의 평균은 3.65(SD=.69), 신뢰 14차의 평균은 3.89(SD=.68), 자아존중감 14차의 평균은 3.19(SD=.53), 학업스트레스 15차의 평균은 2.67(SD=.88), 더불어 각 변수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Kline, 2005).

<표 3> 기술통계 분석

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취압력 14차	1.00	5.00	2.33	0.82	0.38	-0.29
의사소통 14차	1.00	5.00	3.65	0.69	-0.23	0.23
신뢰 14차	1.00	5.00	3.89	0.68	-0.24	-0.22
자아존중감 14차	1.00	4.00	3.19	0.53	-0.41	0.56
학업스트레스 15차	1.00	5.00	2.67	0.88	0.08	-0.36

2.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취압력은 의사소통($r=-.161, p<.001$), 신뢰($r=-.337, p<.001$), 자아존중감($r=-.144, p<.001$)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r=.235, p<.001$). 의사소통은 신뢰($r=.714, p<.001$), 자아존중감($r=.360, p<.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25, p<.001$). 신뢰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

났으며($r=.375, p<.001$),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181, p<.001$).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r=-.236, p<.001$).

<표 4> 상관분석

	1	2	3	4	5
1. 성취압력 14차	1				
2. 의사소통 14차	-.161***	1			
3. 신뢰 14차	-.337***	.714***	1		
4. 자아존중감 14차	-.144***	.360***	.375***	1	
5. 학업스트레스 15차	.235***	-.125***	-.181***	-.236***	1

*** $p<.001$

3.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표 5>와 같이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신뢰(독립변수)가 자아존중감(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다. 15.7%의 설명력으로 자아존중감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값이 유의하여($F=77.683, p<.001$)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고, Durbin-Watson 지수 역시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과($\beta=.193, p<.001$) 신뢰($\beta=.225, p<.001$)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부모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두 번째 모델은 성취압력과 의사소통, 신뢰(독립변수)가 학업스트레스(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명력은 6.5%로 나타났고, F값이 유의하였고($F=29.495, p<.001$), Durbin-Watson값 역시 1.924로 양호하였다. 결과를 보면,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198, p<.001$), 부모와의 신뢰는 부적 영향을 미쳤고($\beta=-.097, p<.05$). 이는 성취압력 중심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모와의 신뢰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 모델은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매개변수)이 학업스트레스(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설명력은 9.6%이며, F값이 유의하였고 (F=33.661, p<.001), Durbin-Watson값도 1.938로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성취압력은 여전히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eta=.191$, p<.001),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94$, p<.001). 즉, 성취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나, 이러한 부모 양육방식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5 > 매개효과 분석

Model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eta	t	p	R2	F	Durbin-Watson
1	자아존중감 14차	성취압력 14차	-0.024	0.018	-0.037	-1.314	0.189	0.157	77.683***	1.938
		의사소통 14차	0.146	0.028	0.193	5.134***	0.000			
		신뢰 14차	0.174	0.031	0.225	5.702***	0.000			
2	학업스트레스 15차	성취압력 14차	0.214	0.032	0.198	6.728***	0.000	0.065	29.495***	1.924
		의사소통 14차	-0.031	0.051	-0.024	-0.614	0.539			
		신뢰 14차	-0.126	0.054	-0.097	-2.328*	0.020			
3	학업스트레스 15차	성취압력 14차	0.207	0.031	0.191	6.591***	0.000	0.096	33.661***	1.938
		의사소통 14차	0.017	0.050	0.013	0.333	0.739			
		신뢰 14차	-0.069	0.054	-0.053	-1.284	0.199			
		자아존중감 14차	-0.326	0.050	-0.194	-6.567**	0.000			

* p<.1, ** p<.01, *** p<.001

한편,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Sobel-test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뢰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성취압력이 독립변수의 매개 경로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취압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서이며,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는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양육방식이 자아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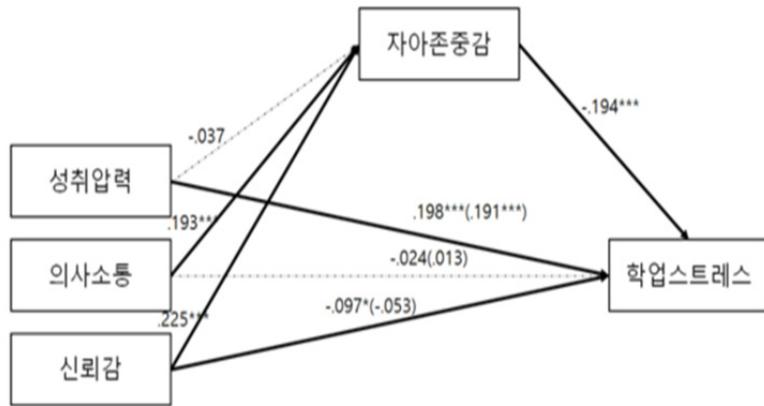
감을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성취압력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코칭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6> 매개효과의 유의성 분석-Sobel-test 검증

경로		B	SE	Z
성취압력	독립 → 매개	-0.024	0.018	1.289
	매개 → 종속	-0.326	0.050	
의사소통	독립 → 매개	0.146	0.028	-4.045***
	매개 → 종속	-0.326	0.050	
신뢰	독립 → 매개	0.174	0.031	-4.306***
	매개 → 종속	-0.326	0.050	

*** p<.001

분석 결과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p<.05, *** p<.001

[그림 1] 연구모형 분석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같은 시점의 변수들을 사용하는 횡단분석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시점의 부모 양육방식과 그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1년 뒤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수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함을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홍열, 2010; 백수진, 2021; Johnson et al., 2006).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김윤덕(2023)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신뢰, 의사소통)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성은정과 이호준(2021), 이지연과 김해란(2019)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부모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사춘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를 존중하며 일관된 관심과 자원을 제공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 중심의 양육방식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뢰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의사소통은 학업스트레스에 미비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와의 신뢰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밝힌 김성심과 강승희(202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손승희와 정지나(2021), 이의빈과 김진원(2020)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성취압력 중심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반면, 신뢰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머니(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질문과 같이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보다 큰 영향

력을 발휘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상황에서 성취압력이 압박과 불안을 어떻게 증가시키며, 성취압력 양육방식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메카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분노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은진(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Mulyadi et al.(2016)의 연구, 높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손승희와 정지나(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성취압력이 지속적으로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서 다음 해에까지 학업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는 학습상황에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대해 차후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양질의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성취압력 중심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지나친 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양육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자녀 양육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는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육방식,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횡단 연구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기존의 횡단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보다 장기적 관점의 종단 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 데이터수집과 관찰을 통해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문화권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비교연구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종단 연구, 객관적인 데이터수집 방법, 다양한 문화권과 배경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양육 전략과 자녀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쌓으며, 성취압력을 조절하는 양육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학업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및 코칭, 상담 현장에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코칭, 상담 서비스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경(2012).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정애(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및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구조관계:성별 및 학교급 별의 다집단 분석.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유림(2016). 중학생의 학업, 진로, 외모, 일상 생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호·차은진(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중등생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학교급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27-54.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 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웅·박하연·이강이(2022). 부모의 학업지원과 정서지원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9, 21-41.
- 김미옥·이용택(2023). 여자 청소년의 부모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종단적 관계. **미래사회**, 14(1), 104-117
- 김성심·강승희(2023). 부모와의 애착-신뢰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성장신념과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학부모연구**, 10(4), 1-5.
- 김양분·강호수(2017). 중학생의 학업성취 변화 관련 요인탐색. **한국교육**, 44(1), 33-61
- 김용기(2022). 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P 지역 일반고교 학교운영위원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9(1), 175-194.
- 김유정·이은미(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 교육학회지**, 22(3), 326-333.
- 김윤덕(2023).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그것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자(2018). 고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15).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239~266.
- 김은정·김윤정(202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부모 지도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10(3), 359-370.
- 김지영·이형실(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요인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22(1), 21-32.

- 김진아(2019).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모형. **청소년학연구**, 26(9), 217-246.
- 김현순(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 남상필·이지연·장진이(2012).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도미향·김은영(2024).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 문명현(2016). 청소년의 인지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숙(2022).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 동조성, 갈등 협상 전략이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진·김송미(2023). 고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신뢰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4(3), 2077-2088.
- 박예라(2020).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 자기성찰지능, 그것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 및 성별에 의한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김정은·박지명(2014). 부모 유대감 변화가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 지도 감독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9), 123-145.
- 박혜진·김형태·이수찬(2018).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0(3), 137-160.
- 배용순(2022).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식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대처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수진(2021). 종단자료를 활용한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 변화 및 유형별 학생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경·이웅택·이은경(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기의 부모 진로지도가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3, 5-31.
- 성은정·이호준(202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6), 643-656.
- 손승희·정지나(202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61-770.
- 송미라·한기백(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송홍정(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것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명희·서은희·송수지·김은경·원영실·노원경 외 (201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성철·최성열(2019).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3), 59-72.
- 신창환·이효녕·김초복·허재홍(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 영향. **사회과학연구**, 29(2), 155-171.
- 이영아·정원철(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 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 안태용(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 과외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9(4), 133-160.
- 양선하(200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자아존중감과 시험 불안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유식·김경미·이승원 (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조사 2016 : 중·고등학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정희·선혜연(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우채영·정현희(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20(6), 247-168.
- 이미라·전향신(2020). 부모의 양육 태도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선애(2009). 가족 자원 및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이선행·황혜정(2018).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25-248.
- 이유림(2021).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의빈·김진원(2020). 보호자의 자녀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 태도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학연구**, 27(11), 117-145.
- 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중환·김봉년·안동현·기예니·오세영·김환철·김영원·이기재(2017).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연·조연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 연구**, 7(2), 53-70.
- 이지연·김해란(2019).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조절 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1), 61-83.
- 임성애(2021).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학습동기와 수업참여의 종단적 관계. **교육학연구**, 59(4), 163-184.
- 전향신·박분희(2020). 부모 양육태도, 교사관계, 교우관계, 그릿, 우울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407-422.
- 정성원·장유나·홍세희(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의 관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7(3), 205-229.
- 정수정·김소은·정익중(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초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지**, 39(6), 15-25.

- 조선화(202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청소년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학회**, 25(2), 145-161.
- 지민정·이에스더(2023). 융합예술치료가 뚜렛장애 아동의 틱 증상 감소와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단일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3), 869-889.
- 차한솔·김주일·이호수(20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하아영(2022).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 교과 이해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와 종단적 영향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9(3), 127-149.
- 하홍렬(2010). 브랜드이미지와 브랜드 애호도 관계의 이해: 종단적인 연구. **소비자연구**, 21(4), 1-20.
- 한유진(2024).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경·김선길·도미향(2024). 청소년의 코칭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1(2), 97-116.
- 홍윤경·최혜진(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 - 454.
- Banks, J., & Smyth, E.(2015). ‘Your whole life depends on it’: Academic stress and high-stakes testing in Ireland.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598-61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3),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Johnson. Michael D., Andeas Herrmann & Frank Hurber(2006). Rhe Evolution of Loyalty Intention. *Journal of Marketing*, 70(2), 122-132.
- Kline, R.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e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
- Koruklu, N. (2015). Personality and social problem-solv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5(2), 481-487.
- Kusheta, S., Bancha, B., Habtu, Y., Helamo, D., & Yohannes, S.(2019).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ssuesand its factors among secondary and preparatory school students in HadiyaZone, Southern Ethiopia: institution based cross sectional study, *BMCP ediat ics*, 19(1), 1-11.
- Mulyadi, S., Rahardjoa, W., & Basukia, A. M. H. (2016). The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cademic self-efficacy to academic stres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17, 603-608.
- Murberg, T. A., & Bru, E. (2004). School-related stress and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 Norwegian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5(3), 317-332.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 Yan, Y. W., Lin, R. M., Su, Y. K., & Liu, M.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cademic stress and sleep quality: A multiple mediation model.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6(1), 63-77.
- 한국방정환 재단(2024). www.children365.or.kr
- 여성가족부(2021). <https://www.mogef.go.kr>
- 통계청(2021). <https://kostat.go.kr/unifSearch/search.e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Heo, Mi kyung* · Do, Mi hyang**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chievement pressure, communication, and trust) and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Data from the 14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PSKC) were analyzed, focusing on parenting styles (achievement pressure),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self-esteem, and academic stress. Analyses included reliability testing (Cronbach's alpha),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a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26. The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through a three-step mediation analysis and by the Sobel tes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and trust with par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elf-esteem. In other words, the better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the higher the self-esteem. Second, achievement press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cademic stress, while trust had a negative impact. Thir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academic stress. In other words, self-esteem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reduces academic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for desirable parenting styles to mitigate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are proposed.

Keywords : Parenting styles, Academic stress, Self-esteem, Adolescents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